

# 광주·전남 상장사 주가 곤두박질...시총 1조6천억 증발

### 한전 1조3천억·한전 kps 2천억·금호타이어 160억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강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시에 4일 광주·전남 상장기업의 주가도 곤두박질했다. 개장 전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커지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증시는 최대 15% 급락, 지역 상장기업 40곳의 시가총액은 1조6000억원이 증발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3분 기준 광주·전남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대비 1조6192억 69만4765원(7.3%) 감소한 2조3309억9475만2846원을 기록했다. 지역 상장기업 40곳 가운데 30곳의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하락했으며, 보합을 기록한 곳은 3곳, 상승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10% 이상 하락한 기업만도 2곳이었으며, 5~10%미만 하락한 기업은 3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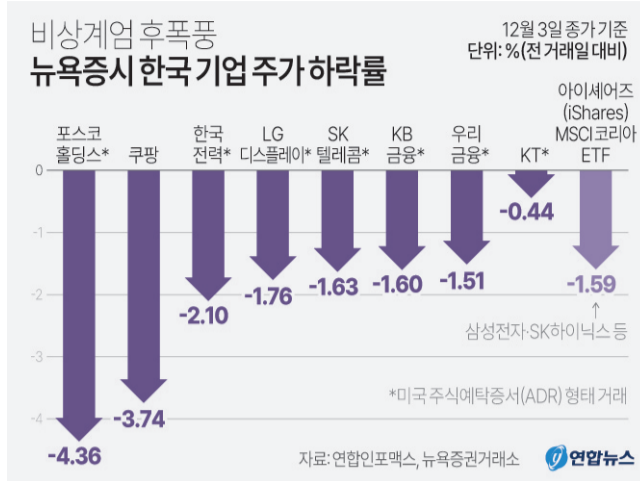
지역 최대 상장기업인 '한국전력'은 하루 사이에 무려 시가총액(13조9306억원)의 10% 수준에 달하는 1조3481억 2456만1700원이 감소했다. 주가는 전날 종가(2만3800원) 대비 8.82%(2100원) 빠진 2만1700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 다음으로 시총 규모가 큰

'한전KPS'도 2137억 5000만원의 시총이 증발했고, 주가는 전날 4만 8600원에서 4750원 줄어든 4만 3850원을 나타냈다. '금호타이어'도 시총 143억6301만4350원이 감소, 주가는 전날 마감장보다 1.0% 감소했다.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큰 기업은 금호건설의 우선주인 '금호건설우'로 전일 대비 등락률 14.67%(1만8750원→1만600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에스오에스랩'이 시가총액 194억5001만원이 줄었고, 주가는 11.31% 감소했다. '박셀바이오'도 시총이 55억 1836만원 줄었다.

반면, 주가가 상승한 기업도 있었다. '대신정보통신'은 8.87% 상승 시총 약 28억원이 올랐고, '와토스코리아' (9.71% ↑)와 '정다운' (3.75% ↑)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내 증시는 1.4% 가량 하락해 2460대로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34포인트



(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해 한때 2% 넘게 하락한 2440대까지 밀렸다. 다만 이내 낙폭을 줄이며 2460대에서 횡보세를 나타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81억원, 172억원 순매수했음에도 외국인이 4071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0.93%), LG에너지솔루션(-2.02%), 현대차(-2.56%)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수 내렸다. 지역 상장기업 뿐 아니라 국내 증시 회복세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평가가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라면·물...비상식량 사자” 유통가 한 밤에 매출 급증

### 편의점·온라인 채널 등 통조림 75.9%·건전지 25.7% 증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조치가 이뤄진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동안 라면과 물 등 비상식량 및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편의점 등 늦은 시간에도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24시간 이용가능한 쿠팡 등 온라인 채널 등에서 생필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 편의점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식자재 등 생필품과 식품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A편의점은 비상계엄이 본격 실시된 지난 3일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통조림(75.9%), 햇반(38.2%), 생수(37.4%), 라면(28.1%), 건전지(25.7%), 식재료(23.8%) 등의 매출이 직전 2일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B편의점에서는 주거시설 인근에 있는 지점 4000곳을 분석한 결과, 1주일 전보다 생수(23.1%), 봉지라면(16.4%), 통조림(15.5%), 즉석밥(14.8%), 안전상비약품(12.1%) 등의 매출이

신장했다. 이처럼 생필품과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긴 식품류의 매출이 급증한 것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심야에도 이용가능한 온라인 채널에서도 라면과 즉석밥, 참치(통조림) 등이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계엄 사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불안함이 담긴 질문과 댓글 등이 잇따랐고, “혹시 몰라서 라면이랑 물은 배대시켰는데, 제 때 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들도 잇따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비상계엄 현장 라이브 방송 등에서 군인들이 국외 출입을 막는 등의 모습을 보며, 전시 상황같은 불안심리가 작용하면서 생필품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증시 불안심리 편승한 허위·풍문 유포 엄정 대응”

### “주식시장 우려 수준 아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24시간 비상대응”

####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4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해진 금융상황에 대해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시장에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도 급락했지만, 해제 조치 이후 진정되면서 이날 국내 주식시장 변동 폭이 우려할 수준

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의 완전 정상화까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에서 이상징후를 탐지하게 되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할 수 있는 모든 안정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외국계 은행 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 건정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권 외화 조달 여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별

로 외화 유동성 변동 추이를 밀착 점검한다.

주식시장 불안에 따라 확대되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허위·풍문 유포행위 등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필요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신속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은 “비정례 RP 매입...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 임시 금통위 개최...모든 가능성 고려 안정화 조치 시행

한국은행은 4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임시 금통위를 열고, “오는 2025년 2월 말일까지 비정례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P매입은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유동성 공급 방법이다. 기존에는 국채와 정부보증채,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지정한 유가증권에 대한 RP 매입이 가능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 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RP매매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이 역시 기존에는 금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RP매매

가 가능했지만,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전체, 증권사, 선물회사 전체를 RP매매 대상 기관으로 허용한다.

또 한국은행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을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하고, 이번 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추가된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의 한시장 변동성이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장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